

신·레케·우난니의 『길가메쉬 서사시』 편집의도

배철현
(서울대학교)

No author felt inferior or unoriginal because he used, adapted, and modified themes inherited from tradition and sanctioned by antiquity.

...To work within a given tradition and adopt its devices is perfectly compatible with emotional power and artistic value. The real critical problems in this kind of study arise when we reach the stage of weighing and comparing, of showing how one artist utilizes the achievements of another artist, when we watch the transforming power.¹⁾

I. 들어가는 글

『길가메쉬 서사시』(Gilgamesh Epic: GE)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²⁾ 현재 이라크에서 기원전 21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로 추정되는 여러 종류의 쪄기문자들로 쓰인 토판문서에서 발견된 서

【Keywords】Epic of Gilgamesh, Mesopotamia, Sumerian, Akkadian, literary stemma, Standard Version, Old Babylonian Version, Sumerian Version

- 1) R.. 웨렉과 A. 워렌(259)의 문학 형성의 기원에 관한 주장을 특히 고대 신화들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아무리 오래된 문학이라 할지라고, 그 문학의 구성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그 이전의 구전 혹은 문전의 내용에 대한 개작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 2) ‘메소포타미아’라는 용어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두강 사이(의 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Μεσοποταμία (Polybius, *Fragmenta* 5.44.6; Strabo, *Chrestomathie* I.1, I.2.2.)에서 유래했다. 이 용어는 구약성서에서 언급되는 두강이란 히브리어 ‘나할라 임’**נַהֲלָה**을 차용·번역한 것이다.

사시이다. GE는 지중해의 전통적인 서사시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시각을 제공해 줄뿐 아니라, 인류 최초의 세계문학형태를 보여준다.³⁾ 이 인류 최초의 서사시는 다른 고전문헌들이 그렇듯이, 단일한 문헌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균동지방 전역에서 여러 판본들, 그리고 다른 언어로 여러 번역본들이 전해졌다.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은 후대의 다른 문헌들과는 달리,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 판본들이 존재한다. 한 판본의 이야기 줄거리에서 다른 판본의 중요한 부분이 생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생략된 부분이 많아 다른 판본의 도움 없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중의 이야기가 항상 확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7세기 니느웨(Nineveh)에서 발견된『이쉬타르의 지하세계로의 하강』이라는 최근 판본은 그 시의 원형이 되는『이난나의 지하세계로의 하강』인 수메르어 판본의 반 정도 분량이다. (Bendt (1996), 1-18; J. Bottéro, Jean and S. N. Kramer (1993): 276-290; Th. Jacobsen(1983): 205-232.; 배철현(2004): 1-20; 조철수(2003): 270-298)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은 문전으로 정형화되면서, 동시에 궁중시인들에 의해 구전으로도 계속 불려졌다. 문헌으로 남기는 주된 이유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는 연결된 이야기를 주고자 하는 것만 아니다. 쪼개문자로 새겨진 이야기들은

3) 세계문학 Weltliteratur라는 용어는 1827년 독일의 시인 괴테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당시 헤르더의 문화적·언어적 독립 단위의 국가가 지닌 영적인 본질인 Volksgeist를 넘어서는 개념이었다. 당시 T. B. 맥콜레이 Macaulay의 인도로 대표되는 ‘오리엔트’ 문학보다 영문학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악명 높은 “Indian Education: Minute of the 2nd of February, 1835” (in Macaulay: Prose and Poetry, ed. G. M. Young (London: Rupert Hart-Davis, 1952: 719-30)와 같은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경고였다. GE에 나타나서 후대 호메로스와 중세기 고대영어 서사시 베오울프 Beowulf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주제들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남성 피물을 식인적이다(후와와 vs. 폴리페모스 vs. 그렌델); 2) 여자 주인공이 죽음으로 위협한다(이쉬타르 vs. 키르케 vs. 그렌델의 어머니?); 3) 영웅의 친구가 죽음 (엔카두 vs. 엘페노르 vs. 혼드스키 오/ 아스케레?); 4) 지하세계로의 하강과 죽음을 극복 (우트나피쉬팀과의 만남 vs. 오딧세우스의 하데스 방문 vs. 메레방문); 5) 현실세계로의 귀환 (우록으로 돌아온 vs. 오딧세우스의 귀환 vs. 베오울프의 흐로쓰갈 법정으로 돌아온 후, 스웨덴으로 귀환).

여러 용도에 사용되었다. 제의에 사용되어 권위를 부여해 주거나 혹은 현상의 기원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나 사제의 주문에 중요성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학작품의 특징은 표절과 개작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도서관에 소장하고 후대 서기관들의 습작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종의 ‘정경화’ 작업이 카사이트 시대에⁴⁾ 본격화 되었다. 그 후, 앗시리아 제국의 투쿨티-니눌타 1세 (Tukulti-Ninurta I: 기원전 1244-1208년)가 기원전 13세기 바빌론을 침공했을 때 바빌론 신전에 떨린 도서관을 노획하였다. 후대, 기원전 7세기 니느웨를 수도로 정한 아수르바니팔(Assurbanipal: 기원전 668-627)은 그곳에 도서관을 만들어 자신이 노획한 모든 문헌들을 보관하였다. 이와 같은 약탈과 여러 가지 필사본들 때문에 아시리아와 바빌론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쇄기들이 발견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서사시와 신화들은 메소포타미아 밖에서도 발견되었다. 주변 국가의 언어들, 즉 히타이트어, 후리어, 엘람어 등으로 쓰인 토편문서들이 발견된다. 특히 아카드어가 기원전 1500년부터 500년까지 이집트, 아나톨리아, 이란에서 국제 공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아카드어 문학작품들이 각 나라에서 서기판을 교육시키는 교재가 되었고 아마도 GE는 이들의 커리큘럼의 대표적인 교재였음이 틀림없다. 또한 그들의 장거리 무역과 각 나라에 무역소의 설치로 아카드어 이야기가 주변국가의 문헌들, 특히 구약성서, 호메로스의 『일리야드』와 『오딧세이』,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일들과 날들』, 그리고 『아라비안나이트』 등의 이야기와 공통된 부분이 많다.⁵⁾

4) 카사이트 시대는 함무라비의 바빌론이 멸망한 기원전 1595년부터 기원전 1155년까지 바빌론을 중심으로 치리한 왕조이다. 카사이트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카사이트인들은 말을 기르는 기술이 뛰어났고, 고대 수메르로부터 내려오는 문학작품들을 집대성하여 도서관을 만들었다. 후에 신-앗시리아 시대 왕 아수르바니팔왕이 니느웨 도서관의 수많은 판본들의 원본은 카사이트 시대의 것이다.

5)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공동의 원-지중해 문학전통이 있었으며, 그 전통이 각 지역들, 수메르,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헷타이트, 우가리트, 고대 이스라엘, 그리스-로마로 퍼지면서 나름의 문헌을 창안해 냈다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최근 고전학자들

II. 「길가메쉬 서사시』의 역사적 배경들

GE는[R. C. Thompson (1930); A. R. George (2004)] 쐐기문자로 쓰인 문학 작품들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정교한 작품이다. 길가메쉬라는 영웅이 명성과 불명을 운명적으로 추구하고, 단짝 친구를 만나 단짝이 되어 모험을 하고, 순간의 실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서사시이다. GE의 매력은 길가메쉬나 엔키두, 그 밖에 언급되는 인물과 이 서사시의 오래됨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시작된 이야기들이 하나의 서사시로 옮겨진 그 경위를 살펴볼 수 있다. GE의 원형들이 문헌으로 존재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GE의 구전전통이 문헌 전통을 변화시켜 왔다.

GE에 대한 단편 비문이 현재의 중동지방과 세계 각처의 박물관 지하 문헌 창고에서 계속 발견되면서 길가메쉬에 대한 역사성도 점차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보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전해진 문헌들로 인해 그 의미가 밝혀지는『구약성서』나 고전 문헌들처럼 GE 전체를 구성하는 독립적인 요소로는 사용될 수 없다. 사실 더 많은 단편 문서들이 발견되면 될 수록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기는 더 힘들기 때문이다.

GE는 서사시로 구분되었다. 신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역사성이 있는 길가메쉬라는 인물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신화가 아니라 서사시로 구분된다. 내용 면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자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때로는 하늘의 결정을 막기도 한다. GE가 예배 의식에서 낭독되어졌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서사기가 왜 쓰였나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으나 이 서사시의 이야기들은 아마도 각기 ‘재미’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의 첨예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 중 몇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M. L. West (1997); C. Penglase (1994); W. Burkert (1992); 배철현 (2004 A).

II.1. 길가메쉬의 역사성

역사적으로 실존한 길가메쉬 수메르의 제2초기 왕조(기원전 2700-2500) 시대 우루시의 왕이었다. 후대 쐐기문헌 기록에 의하면 길가메쉬가 우루의 성벽과 니푸르의 신전을 재건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공적이 GE를 남기게 할 만큼의 위대한 공적은 아니다. 대부분의 수메르 왕들은 신전건축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수메르 문헌들과 아카드 문헌들에 등장하는 길가메쉬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분히 신화적이거나 전설적인 요소들이 많아, 역사적인 확인 가능한 길가메쉬의 공적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가미되어 GE가 쓰였을 것이다.

길가메쉬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었다. 오랫동안 『수메르 왕조 기록』에 (D. W. Young (1991): 23-35; P. Michalowski (1983): 237-248; W. W. Hallo (1990): 187-199; Th. Jacobsen (1939)) 나오는 왕들은 가상적이며 신화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은 수 백년에서 수 만년을 사는 인물로 묘사된다. 여기에 길가메쉬와 동시대 인물인 키쉬(Kish)의 왕 ‘엔메바라게쉬’(Enmebaragesi: 기원전 2700년경)의 비문이 발견되었다.

엔메바라게쉬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로 길가메쉬보다 몇십년 앞서 산 키쉬의 왕이었다. 『수메르 왕조 기록』에 의하면 길가메쉬는 우루시 첫 왕조의 다섯 번째 왕이었다. 길가메쉬의 존재가 그를 인용하고 있는 쐐기문자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동시대의 인물인 키쉬와 우르의 왕인, 메바라게쉬(Mebaragesi)의 이름이 적힌 비문이 발견됨으로 연역적으로 그의 역사성이 밝혀졌다. 이 왕은 키쉬의 첫 왕조의 21번째 왕으로 길가메쉬와 싸웠던 아카(Akka)왕의 아버지이다. 엔바라게쉬에 대한 언급은 다음 문헌들에서 등장한다.

1) 『수메르 왕조 기록』 제2 토판 35행이하.

Enmebaragesi lú mada.Elam.ki.(a)k.ø giš.tukal.bi í.b.ta.n.gúr.ø.a
 “엔바라게쉬, 엘람나라를 그 무기로 쳐부순 사람”

lugal-àm mu-900 i-ak
 lugal.àm mu.900 i.ø.ak
 “왕이 되어 900년 동안 지냈다”

ak-kà dumu-en-me bara2-ge-si-ke4
 Akka dumu.Enmebaragesi.(a)k.e
 ‘아카, 엔바라게쉬의 아들’

2) 『길가메쉬와 아카』 Col.1.1. C. Miguel (1999-2000):179-189; J. S. Cooper (1987): 224-239; D. Katz (1987, 1993); H. L. J. Vanstiphout (1987)

ak-kà dumu-en-me-bara2-ge4-e-si-ke4
 Akka dumu.Enmebaragesi.(a)k.e
 ‘아카, 엔메바라게쉬의 아들’

II.2. 길가메쉬 부모의 역사성

길가메쉬의 부모에 대한 기록은 두 가지 전통이 있다. 첫째는 GE는 루갈반다(Lugalbanda)가 그의 아버지로 묘사한다.

1) 『길가메쉬 서사시』 SV I.33-34⁶⁾

33. e-mu šá d,LUGAL.BÁN.DA dGIŠ.GÍN.MAŠ gít-ma-lu e-mu-qí
 emu šá d.Lugalbanda dGilgameš gitmálū emūqi
 “루갈반다의 아들(직역: 사위), 길가메쉬는 힘센 젊은이”

34. [ma]-ru ar-ḥi šir-ti mí.ri-mat d.NJN.SÚN

6) 이 논문의 후에 소개될 신-레케-우닌니의 표준 바빌로니아 판본(Standard Babylonian Version: SV)이다. 쇄기문헌의 자역, 음역, 번역은 필자의 해석이다.

māru arbi šīrti mí.rīmat d.Ninsun
“송고한 암소인 야생암소 난순의 아들이다”

『수메르 왕 기록』에⁷⁾ 의하면 루갈반다는 길가메쉬가 제위하기 전에 우룩시의 왕이었다. 루갈반다에 대한 서사시은 있지만, 루갈반다와 길가메쉬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대한 역사 비문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루갈반다가 기원전 2800에서 2500사이에 존재한 인물로 본다.

2) 두번째는 『수메르 왕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길가메쉬의 아버지는 ‘릴루’(*lillu* ‘귀신들린 사람’)이었고 우룩시의 한 부분인 ‘쿨랍’(Kullab)의 대 사제였다. 『수메르 왕조 기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수메르 왕조실록』 107-115행

(107) ^dugal-ban₃-da sipad (108) mu 1200 i₃-ak (109) ^ddumu-zid šu-KU₆ (110) uru^{ki}-ni kuara^{ki} (111) mu {100} i₃.ak (112) ^dgilgameš₃ (113) ab-ba-ni lil₂-la₂ (114) en kul-ab-ba-ke₄ (115) mu 126 i₃-ak

(107) ^{dL}ugalbanda sipad (108) mu 1200 i₃.ak (109) ^dDumuzid šū-KU₆ (110) uru.^{ki}ani kuara^{ki} (111) mu {100} i_{3..}ak (112) ^dgilgameš (113) abba.anı lilla (114) en Kulab.ak.e (115) mu 126 i₃.ak

“목동 루갈반다, 그는 1200년 동안 살았다, 어부 두무지, 그의 도시는 쿠아라인데, 그는 100년 동안 살았다. 길가메쉬, 그의 아버지는 릴라 (귀신들린자)이며,

7) 『수메르 왕 목록』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수메르어로 쓰인 토판문서들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신이라는 나라의 ‘다믹일리수’(기원전 1816-1794) 시대에 기록된 목록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세상처음에 왕권이 하늘로부터 에리두에 내려왔다고 전한다. 이 비문이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가 수메르를 합병하기 몇 년 전에 기록된 문헌이기 때문에, 바빌로니아는 수메르의 한 지방으로 묘사되어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역사적인 사실과 상상이 결합된 문헌으로 구약성서 [창세기] 11장 10-26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유사하다.

쿨립의 ‘엔’인데, 그는 126년 동안 살았다.”

물론이 두 전통을 종합하여 루갈반다는 ‘릴라’로 시작한 ‘쿨립’의 대 사제이며, 후에 우록의 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마도 이 두 자료는 서로 다른 문학 전통의 혼합인 것 같다. 길가메쉬는 우록을 정복하고 그가 정복한 도시의 왕인 ‘루갈반다’를 자기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것 같다. 그래서 길가메쉬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SV I.48

48 šít-tin-šú DINGIR-ma šul-lul-ta-šú a-mí-lu-tu
 šittinšu ilūt-ma šullultāšú amīlūtu
 “그는 2/3 는 신이고, 1/3은 인간이다”

II.3. 우록시의 역사성

길가메쉬가 왕이 되었던 도시는 우록[현재 이락 남부 와르카(Warka)]이다. 독일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 기원전 4000년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도시는 원래 두 개의 마을이 강을 가운데 두고 형성되었다. 한 마을의 주요 신은 하늘신인 ‘안’(AN)이었고, 또 다른 마을의 신은 곡식창고의 여신이자, 전쟁과 사랑의 신인 ‘이난나’(Inanna)였다. 우록 전통에 의하면 이난나는 안의 딸이며 이난나 신전 이름은 ‘에난나’(Eanna), 즉 ‘안/하늘의 집’이다. 이 두 신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G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록시는 쐐기문자, 아니 인류 최초의 문자가 기원전 3300년에 발견된 장소이다.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우트나피쉬팀(Utnaphishtim)의 고향 ‘슈록팍’(Shuruppak)과 마찬가지로 그림문자와 초기의 쐐기문자가 기원전 3300년에 발견된 곳이다. 기원전 2150년전에는 GE의 골격이 아직 기록되기 오래전에 이미, 우록에는 길가메쉬에 대한 오랜 전통이 오래 전부터 살아 있었다.

원통 도장에서 한 영웅이 들짐승과 싸우는 장면으로부터, GE가 형성되기 이전 영웅적인 길가메쉬가 신격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III. GE의 수메르어 원본들 (기원전 2500-1700년)

GE 문헌연구의 ‘매력’ 중에 하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 중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기 때문에 (Kramer, 1959)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엘람지역(현재 이란), 후리지역(현재 아르메니아), 팔레스티나, 헛타이트(현재 터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아주르바니팔의 니느웨 도서관에서 발견된 GE는 최종 결정판으로 실제는 기원전 14세기경 카사이트 시대 구마사제의 GE의 복사본이다. 그러나 GE는 1000년 이상 전해내려 온 수메르어 자료, 구전 자료, 그리고 고대 바빌론 자료를 종합하여 재배열시킨 결과물이다.

III.1. 우룩 원본들 (Kramer, 1944)

GE와 관련 있는 수메르어로 쓰인 이야기의 발견은 GE 자료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1920년까지 야스트로는 수메르 흥수이야기는 이전에 발견된 아카드어로 쓰인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처럼 길가메쉬와는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다 (Jastow and Clay, 1920). 그러나 그 이후, 수메르어 판본을 연구한 랑그돈은 수메르 GE는 흥수에 대한 독립적인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Langdon 1932).

기원전 2150년에 들어서면 적어도 세 개의 우룩왕에 대한 비문들이 찾을 수 있다. 첫째 문헌 전통은 길가메쉬의 할아버지인 ‘엔메르칼’(Enmerkar)에 관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길가메쉬의 아버지인 ‘루갈반다’에 관한 전통이며; 셋째는 길가메쉬 자신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모두 수메르어로 쓰였고 ‘대

결(contest) 문학' 장르이다.

이란 대결 문학은 우룩이 속한 남부 메소포타미아가 우르(Ur)에 의해 지배당할 때 유행했다. 우르는 우룩의 문학 전통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최근까지 이 당시 우르와 우루의 언어가 모두 수메르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위 우르 제 3왕조(The Third Dynasty of Ur: 기원전 2100-2000년) 문헌에 셈족어인 많은 아카드어가 발견되는 것을 미루어, 우르 시민들의 일상 언어는 아카드어였을 것이다.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외국어인 수메르어를 고전어로 쓴 흔적이 있다. 특히 우르의 왕 술기(Shulgi: 기원전 2094-2047년)는 길가메쉬 관한 이야기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난순'이 자기의 어머니이고 길가메쉬가 자기 동생이라고 주장하였다.

길가메쉬에 대한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길가메쉬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난 후였다. 이 때 길가메쉬는 이미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GE에서 역사적 길가메쉬를 재구성한다는 시도는 무모한 일이다. 야콥슨에 의하면 길가메쉬에 관한 수메르 이야기들 주제는 길가메쉬가 우루의 왕으로서 행사했던 그의 군사적 역할과 주술적 역할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는 길가메쉬에 관한 수메르 문헌들을 다음 두가자로 분리하였다. 『길가메쉬의 죽음』과 『길가메쉬, 엔키두, 지하세계』는 그의 제사장-왕의 역할에서 왔고, 『길가메쉬와 산자들의 땅』, 『길가메쉬와 하늘의 황소』, 『길가메쉬와 아카』는 그의 군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이 작품들은 18세기 바빌로니아의 서기관들이 기록한 작품들이다. 이 각각의 이야기는 독립적인 작품이었지만 후대 기원전 14세기에 바빌로니아의 구마사제인 신-레케-우닌니(Sin-leqe-uninni)가 편집하고 개작한 '표준 바빌로니아 번역본'(Standard Babylonian Version: SV)의 핵심적인 자료가 되었다.

SV와 마찬가지로, 수메르어 길가메쉬는 아직도 여러 나라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토판문서로 재구성하는 중이다. 많은 토판문서가 발견되면 발견될 수록, 수메르어 판본들과 SV가 다르다는 점이 부각되고, 한편으로는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나의 서사시로 엮은 SV를 구성한 신-레케-우닌니의 편집능력에 놀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SV 편집자가 수메르어 토판문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SV의 편집자인 신-레케-우닌니가 이 판본들을 학교의 교과 과정을 통해 배웠는지, 혹은 전설의 구전으로 알았는지, 혹은 아카드어로 쓰인 구전으로 알았는지 알 길은 없다.

이 이야기들이 분명 SV의 자료가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길가메쉬와 후와 와』는 SB III-V에 있는 ‘백향목 숲으로 정별이야기’를 좀더 정교하게 꾸며주었다. 『길가메쉬와 하늘의 황소』 이야기는 SB IV에 나오는 ‘이쉬타르와 하늘의 황소 이야기’의 줄거리를 제공하였다. 최근 발견에 의하면 SB 제 VIII번째 토판문서에 나오는 ‘엔키두의 장례’는 『길가메쉬의 죽음』에 나오는 길가메쉬의 장례식과 흡사하다.

1) 『길가메쉬와 아까』 (Roemer, 1980; Copper 1981; H. Vanistiphout 1987; Katz, 1993)

이 시는 다른 길가메쉬와 관련된 시보다 짧으며 길가메쉬와 관련된 수메르어 이야기 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문헌이다. 고 바빌로니아 시대에 대표적인 습작 교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다른 수메르 이야기와는 달리 SV과 견줄만한 확실한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에 의견을 묻는 주제는 SV의 제 II 토판에서 길가메쉬가 백향목 숲의 과물 후와와 원정을 나갈 때, 상-하원의 의견을 묻은 모습과 유사하다.

이 이야기는 우루시가 키쉬를 정복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키쉬의 왕인 아까는 우루에 전령을 보내 항복을 요구한다. 길가메쉬는 회의를 소집하여 원로들의 의견을 묻는다. 이 요구를 하기 전에 『길가메쉬와 아까』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길가메쉬와 아까』 제 1토판 1-8행

- (1) lu₂-kiš₂-gi₄-a ag-ga dumu en-me-barag-ge₄-si-ke₄
엔메바라게쉬의 아들, 아까의 사절단이

- (2) kiš^{ki}-ta^d gilgameš₂ unug^{ki}-še₃ mu-un-šir-e₇-eš
키쉬로부터 길가메쉬(가 있는) 우룩으로 왔다.
- (3) gilgameš₂ igi ab-ba iri^{ki}-na-še₃
길가메쉬는 그의 도시의 장로들 앞으로
- (4) inim ba-an-šar inim i₃-kiš₂-kiš₂-e
inim ba.an.šar inim.ø i₃.kiš₂.kiš₂.e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개진한다.
- (5) túl-til-le-da túl kalam til-til-le-da
“우물을 비우는 것, 나라의 우물을 비우는 것,
- (6) túl niğ 2-bàn-da kalam til-til-le-da
나라의 얕은 우물을 비우는 것,
- (7) túl buru3-da èš-lá til-til-le-da
물을 끌어 올리는 줄이 있는 비우는 것,
- (8) e₂-kiš^{ki}-še₃ gu₂ nam-ba-an-ša₂-ša₂-an-de₃-en
우리는 키쉬 왕조에 굴복해서는 않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룩사람들이 키쉬(아카왕의 수도)의 물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축자적인 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시인을 이 구절을 통하여 만일 우룩이 독립을 잃는다면 끝없이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즉, 우물이 마를 때까지 물을 짓는다는 표현이다. 원로들은 항복을 종용하지만, 길가메쉬는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젊은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젊은이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길가메쉬의 승리와 아까의 멸망을 예견한다. 그러자, 길가메쉬는 엔카두를 통해 전쟁준비를 한다. 여기서 엔카두는 길가메쉬의 군대 장관으로 등장한다.

얼마 후 아까는 우룩시를 포위한다. 길가메쉬는 아까의 전선을 교란시킬 용사가 필요했다. 길가메쉬의 경위대였던 비르후르트라(Birhurturra)가 자청한다. 그는 우룩을 떠나자마자 곧 잡힌다. 이 때 우룩의 성벽에 한사람이 보인다. 아까는 비르후르트라에게 그 사람이 길가메쉬인가 물어보지만 비르후르트라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는 곤장을 맞는다. 이번에는 길가메쉬가 성벽에 올라온다. 그러자 엔카두를 선두로 길가메쉬의 병사들이 우룩성에서

출정한다. 아카는 길가메쉬를 보고는 비루후르트라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쟁을 시작한다. 아카는 잡혀 길가메쉬를 그의 상관이라 부른다. 그 후 길가메쉬는 그를 키쉬로 돌려보낸다.

2) 『길가메쉬, 엔키두, 지하세계』 (Alster 1983; Cavigneaux and F. Al-Rawi 2000; Geroge 1999: 175-195; Wilcke 1976)

이 이야기는 “그 옛날에, 까마득한 그 옛날에”로 시작하는 니푸르와 우르에서 발견된 고대 바빌로니아 서기관 훈련학교인 에둡바(Edubba)에서 발견되었다. 수메르어로 쓰인 다른 길가메쉬에 관련된 이야기와는 달리, 신화적인 서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길가메쉬, 엔키두, 지하세계』 1-5행

1. ud re-a ud su₃-ra₂-re-a
그 날에, 그 까마득한 날에,
2. ̄gi₆-re-a ̄gi₆-ba₉-ra₂-re-a
그 밤에, 그 까마득한 밤에,
3. mu re-a mu su₃-ra₂-re-a
그 해에, 그 까마득한 해에,
4. ud ul nīg₂-du₇-e pa-ed₂-a-ba
필요한 것이 적절하게 드러난 그 날에
5. ud ul nīg₂-du₇-e mi₂ zid dug₄-ga-a-ba
필요한 것이 처음으로 돌보아진 그 날에

신들이 우주를 자기들의 소유로 구분한 후에, 커다란 폭풍이 몰려왔다. 지혜의 신인 엔키가 지하세계로 내려가 ‘압수’라는 심연위에 그의 우주적인 거처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폭풍이 그의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였다. 그때 남풍이 불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라던 한 나무를 뽑아 유프라테스강에 부유하고 있었는데, 이난나 여신이 그 나무를 우루시로 가져다 다시 심어 그 나무가 더

자라면 의자와 침대를 만들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면서, 온갖 악신들이 잎사귀, 뿌리, 가지에 끼면서,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 이난나는 자기 오빠인 태양신 우투에게 이 사정을 말했으나, 우투는 도와 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길가메쉬에게 도움을 청하자, 길가메쉬는 악신들을 내쫓고, 나무를 잘라 그녀의 가구들과 나무공과 나무메를 만들었다.

길가메쉬는 ‘엘렉’이라는 나무공과 ‘에키드마’라는 나무메를 가지고 우록 청년들과 게임을 하고 여자들은 음식을 나른다. 게임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피곤에 지친 청년들이나, 음식을 나르는 여자들 모두 신들에게 불평한다. 그러자 엘렉과 에키드마가 한 구멍으로 들어가 지하세계의 깊은 구멍으로 빠진다. 길가메쉬는 이것들을 견지질 못하지 울고 만다. 길가메쉬의 종 엔키두는 자신이 내려가 이것을 가져오겠다고 나선다. 길가메쉬는 지하세계에 내려가면, 반드시 장례식 옷을 입고 장례절차를 따라야한다고 경고한다. 지하세계의 여신인 에레쉬키갈(Ereshkigal)은 자기 아들 닌아쭈(Ninazu)를 위해 일년 내내, 옷은 찢긴 채, 머리는 풀어 해치고, 살은 손톱으로 상채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하세계로 내려간 엔키두는 이 경고를 무시하여, 그곳에 포로로 잡힌다. 길가메쉬는 니푸르에 있는 엔릴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거절당하고 에리두에 있는 엔기에게 도움을 청하자, 태양신인 우투를 시켜 새벽에 엔키두의 그림자를 지하세계에서 가져오도록 명령한다. 길가메쉬와 엔키두는 잠시 동안 만나, 지하세계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이 대화의 요지는 사람이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은 후에도 제사를 통해 신선한 물을 받아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엔키두는 특히 ‘수메르와 아카드의 자손들의 그림자’가 지상에서 아모리인들의 침입으로 신선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우르 제3왕 조가 점점 셈족인들이 아모리족들이 기원전 2000년경부터 침입하기 시작한다는 역사적인 사실로 시사하고 있다.

이 판본의 일부가 SV 제 XII 토판의 기초가 되었다. SV의 제 XII 토판은 이 판본의 중간에서 시작된다. SV의 제 XII 토판은 다른 토판들과는 달리, 수메르 원본의 축자적인 아카드어 번역이다. 제 XII 토판은 인위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상의 모순이 보인다. 길가메쉬가 이난나/이쉬타르에게 친절하다, SV에서는 엔기두가 제 VII 토판에서 죽었으나, 그는 XII 토판에서는 살아있고, 길가메쉬의 친구가 아니라 XII 토판에서는 종으로 나온다.

3) 『길가메쉬와 후와와』: A 판본과 (Edzard 1990, 1991; Schaffer 1993) B 판본(Edzard 1993)

왕이 백향목을 잘라오는 모티프는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제관하는 의식의 메타포이다. 고 아카드시대(기원전 26-23세기)부터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백향목 숲으로가 나무를 베었다. 『구약성서』 이사야 37:24에서는 산헤립(Sennaherib)이 백향목을 베고 자랑하였고,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애가에서는 왕이 죽음으로 백향목이 잘리지 않게 되었다고 전한다.

후와와는 엔릴신의 소나무 숲을 지키는 괴물이다. 얼굴은 꼬불꼬불한 내장과 같고 무시무시한 광채를 지닌다. 수메르 이야기의 백향나무 숲은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에 위치한 엘람의 자그로스 산맥이었으나, SV 판본에서는 메포포타미아의 동쪽인 레바논으로 그 무대를 옮긴다. 이런 상이한 지명은, 이야기가 실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청중의 관심에 의해 지명이 변한듯하다.

이 수메르 이야기도 고대 바빌로니아 애드립바의 인기있는 교재들 중에 하나였다. 백향나무 숲으로의 여행, 후와와를 살해, 그리고 백향목을 넘어뜨림이란 내용은 분명 SV 제 3-5토판의 기초가 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가장 두르러 지게 다른 점은 후와와가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기신이 길가메쉬에게 알려준 주문을 통해 포로가 된다. SV에서 후와와는 무력으로 제압당한다. 거의 유사한 두개의 『길가메쉬와 후와와』가 발견되었다. A 판본은 B 판본에 비해 더 완벽하고 많이 읽혔던 이야기인 것 같다.

『길가메쉬와 후와와』 이야기도 SV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려는 인간의 몸짓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는 ‘산자’의 백향목산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산자’는 후와와의 별명이었다. 전통적으로 이 산은 동쪽에 있었다. 태양신인 우투의 허가를 받고 여행을 떠난다. 길가메쉬는 백향목 숲

에서 이름을 내어 기념비를 세울 작정이다.

[A 관본] 4-7

4. en-ki-du₁₀ murgu ġuruš-e til₃-la sağ til₃-le-bi-še₃ la-ba-ra-an-ed₂-a
엔키두, 사람이란 인생의 마지막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5. kur-ra ga-an-kur₉ mu-ğu₁₀-ga-am₃-ğar
나는 내 명성을 기리기 위해 산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네!
6. ki mu gub-bu-ba-am₃ mu-ğu₁₀ ga-bi₂-ib-gub
(내) 명성이 그곳에 세워질 그곳에서 나는 내 명성을 세울 것이다.
7. ki mu nu-gub-bu-ba-am₃ mu diğir-re-e-ne ga-bi₂-ib-gub
그 어느 누구의 명성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 나는 신들의 명성을 세울 것이다.

SV I.i.8에 실제로 길가메쉬가 자신의 업적을 돌기둥에 새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iḥ-rū]-uṣ i-na na-re-e ka-lu ma-na-aḥ-ti

{iḥru}Juṣ ina narē kalu manāḥti

“그는 모든 고생을 석비에 새겼다”

○마도 이 석비가 GE가 우리에게 전해진 동기일지도 모른다. 이 석비는 후에 청금석(lapis lazuli)에 새겨졌다.

SV I.i.25-26

- 25 [i]-ši-ma ṭup-pi na4.ZA.GÍN ši-tas-si
išī-ma ṭuppi na4.zaginni šitassi
“청금석으로 만든 토판문서를 들고 읽어라!”
- 26 [šá] šu-ú d.GIŠ.GIN2.MAŠ DU.DU-ku ka-lu mar-şa-a-ti
[ša] šū d.Gilagameš ittallaku kalu marsātī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그 (유명한) 길가메쉬에 관한 이야기를”

태양신인 우투는 그를 백향목산까지 인도할 별자리를 준다. 만일 길가메쉬가 다른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처럼 거룩한 숲에서 백향목을 자른다면, 그는 온 땅의 왕이 될 것이다. 태양신 우투의 거주지는 백향목숲이었다. 태양이 가는 길을 위해서 7명의 지니(개인 신)을 두었다. 숲에 도착한 길가메쉬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엔키두나 그와 동행한 우루 짚은이들과는 상의도 하지 않고 백 향목을 넘어뜨린다. 성급한 길가메쉬의 행동은 숲은 지키는 후와와를 깨우고 그때 후와와는 신을 상징하는 ‘메’를 머리에 감는다.

ud-bi-a ur-sag ur-sag-ra ù-mu-un-na-te me-lam-ma-ni sag-gá-na šu-gur-gin⁷
i-in-bún

ud.bi.a ur.sag ur.sag.ra ù.mu.n.nate melam.an.i.ø sag.an(i).a šu.gur.gin⁷ i.n.búr.ø
“그 때에 한 용사가 다른 용사에게 다가왔다. 그는 광채(메)를 펼쳤다”

그 후에 길가메쉬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한 판본에서는 길가메쉬가 후와와에게 자기의 여동생을 주겠다고 속여 광채를 풀게 하였다고 하고 다른 판본에서는 길가메쉬가 후와와에게 그가 입고 있던 7개의 ‘광 채’댓가로 귀중한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 7번째의 ‘메’가 풀리자 나무도 쓰러졌다. 후와와는 이제 힘이 없어졌다. 그는 배신당하여 싸움을 하지만 역부족이다. 후와와는 길가메쉬보다 힘이 약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속임수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 이 계획으로 백향목 숲을 위해 신들이 임명한 후와와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길가메쉬와 하늘의 황소』 (Cavigneaux and Al-Rawi 1993; Wilcke 1973)

이 짧은 수메르 이야기가 아카드어로 편입될 때 확장 되었다. 그리고 내용 사의 차이도 보여준다. 이 시는 길가메쉬와 이난나와의 불화와 길가메쉬와 엔 키두가 하늘의 황소와 싸우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SV의 제 VI 토판의 내용과 도입부분은 다른지만 거의 유사하다. 이 이야기의 토판문서들은 다른 길가

메쉬 토판문서처럼 니푸르에서 발견되지 않고 바그다드의 북동쪽에 있는 텔 하다드(현재 메트란)와 바빌론의 남쪽에 있는 다이렘에서 발견되었다. 두개의 토판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비전통적인 철자법을 사용하기도하여 해석이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하다.

서문이 시작되고 길가메쉬가 그의 어머니 난순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난나가 나타나서 길가메쉬에게 남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난나는 길가메쉬를 창녀들의 소굴인 성벽 구석으로 데려간다. 난순은 길가메쉬에게 이난나를 만나지 말라고 종용한다. 이 때 이난나의 별칭인 ‘신전 여주인’(N:n..E2.GAL)이 소개된다. 이 이름은 두무즈와 이난나가 성혼례를 거행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자 길가메쉬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다.

모욕을 받은 이난나는 하늘의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인 하늘의 신 ‘안’에게 길가메쉬를 살해하기 위해서 ‘하늘의 황소’를 달라고 한다. 안신 이 제안을 거절하자, 이난나는 소리 지르며 지하세계의 죽은 신을 깨우려고 한다. 안신은 하는 수 없이, 하늘의 황소를 이난나에게 내어주고, ‘하늘의 황소’가 땅에 내려와 길가메쉬는 결투하지만, 그 황소를 길가메쉬와 엔키두에게 살해당한다. 황소는 사지가 잘려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뉘어진다. 그러나 황소의 뿔은 이난나의 신전인 에안나(E2.AN.NA)에게 바쳐진다.

길가메쉬와 이난나의 불화는 수메르(우룩)와 아카드(우르)의 정치적 불화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난나는 우르뿐만 아니라 우룩의 여신이었기 때문이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5) 『길가메쉬의 죽음』 (Cavigneaux and Al-Rawi 2000); Kramer 1944)

『길가메쉬의 죽음』은 신들이 허락하지 않는 영생에 대한 인간의 덫없는 추구를 주제로 한다. 이 이야기가 SV에서는 확장되었다. 그 내용이나 구조로 보아 우르 제 3왕조의 창시자인 우르-남무(Ur-Mammu; 기원전 2168-2151)를 애도하는 『우르-남무의 죽음』을 개작한 것 같다.

이 시는 병든 길가메쉬에 대한 애가로 시작한다. 그는 죽음의 사자인 남타

르(Namtar)에 불잡혀 시름시름 아프게 되었다. 이때 엔키신은 길가메쉬에게 환시를 보여준다. 그는 신들의 모임을 보게 된다. 이 모임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신들은 그의 영웅적인 행동, 백향목 숲에서의 행적, 세상 끝으로의 여행, 홍수에서 살아남은 지우수드라로부터 얻은 지혜 등을 논한다. 그들이 당황한 것은 그가 인간이지만 여신인 난순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는 인간이가, 아니면 신인가? 엔키는 나서서 말한다. 영생을 얻는 자는 지 우수드라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길가메쉬는 다른 인간들처럼 지하세계로 가야한다. 그러나 길가메쉬는 지하세계에 사는 두신, 난기쉬지다(Nigishzida)나 두무지(Dumuzi)처럼 지하세계의 우두머리가 되며 젊은이들이 써름을 하며 즐기는 ‘빛의 축제’에서 그가 송축되어질 것이라고 선포된다. 그때 엔렐이 나타나서 길가메쉬의 꿈을 설명해준다. 길가메쉬는 왕으로 태어났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지하세계에서 그는 그의 가족과 엔키두를 만나고 일종의 ‘낮은 신들’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길가메쉬는 꿈을 깬다. 그의 친구들은 길가메쉬에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충고한다 죽음은 불가피함으로 사후에도 얻을 왕으로서 삶에 만족하라고 충고한다. 그래서 길가메쉬는 그의 무덤을 짓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후궁들과 신하들이 그의 사후세계를 준비한다. 지하세계에서 그와 그의 신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길가메쉬는 에레쉬키갈(Ereshkigal)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무덤에 그의 신하들과 눕는다. 이 내용은 SV의 제 VIII 토판문서에서 길가메쉬가 엔키두를 위해 하는 의식과 유사하다. 이 긴 내용은 1926년대에 레오나드 울리경(Sir Leonard Wooley)이 발견한 ‘우르의 왕실 무덤’의 순장을 연상케 한다.

6) 『홍수』

이 이야기는 수메르어로 쓰여진 독립적인 내용이다. GE에서는 독립적인 이야기로 첨가되었지만, 『아트라하시스』에서는 신들이 인간의 인구증가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주제이다. 『홍수』 이야기가 우룩이나 길가메쉬와

는 상관이 없지만 GE의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이 만들어질 때부터 첨가되었다. 『홍수』 이야기는 우록으로부터 멀지 않은 슈루팍(Shuruppak)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수메르어 판본과 아카드어 판본들은 내용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수메르어 홍수 이야기는 주인공 지우수드라가 페르시아 만에 있는 딜문(지금의 바흐레인)⁷⁾의 해변가에 거주하지만 아카드어 홍수이야기에서는 우트나피쉬팀(Utnapishtim)이 ‘강들 어구’에 거주한다. 바흐레인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델타지역으로부터 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고대부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바다 밑으로 흘러 바흐레인에서 올라와 맑은 물을 제공한다고 믿어왔다.

또한 마지막에 방주가 안착하는 지점이 다르다. 수메르어 판본에서는 방주가 어느 장소에 안착한 것이 아니라 물이 빠져 방주가 평평한 지역에 안착했다고 전한다. 아카드어 판본에는 나무쉼(Nimush)산에 안착한다. 나무쉼산은 앗시리아의 왕 아수르나시르팔(Assurnasirpal: 기원전 1050-1032)의 연보에 나오는 지명으로 남부 아르메니아에 위치한다. 성서의 노아 홍수는 아르메니아의 최북단인 아라랏산에 안착했다고 전한다.

7) 『이난나이쉬타르의 지하세계로의 하강』 (Bendt 1996; Bottéro and Kramer 1993; Jacobsen 1987; Kramer 1980; Römer 1993; Sladek 1974; 배칠현 2004; 조철수 2003)

『아난나의 지하세계로의 하강』이라고 알려진 수메르어 시와 『이쉬타르의 지하세계로의 하강』이라는 아카드어로 쓰인 작품이 있다. 이 이야기는 SV의 제 XII 토편에 첨가되었다. 길가메슈가 그이 친구 엔기두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은 『아난나의 지하세계로의 하강』에서 아난나의 장관이 애원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아난나의 지하세계로의 하강』은 원래 두무지신에 관한 오래된 신화에 속하는 글이다. 이 이야기는 우룩이나 길마메슈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야기였다.

III.2 기원전 18--17세기 아카드어 판본들

GE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더해지면서 그 윤곽을 드러냈다. GE는 서사시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지만, 발견된 토판 문서들이 단편적이라 재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몇몇 문서들은 어린아이들의 습작으로 오류가 많고, 몇몇 개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몇 장은 자신 있게 단편들을 나열시킬 수 없다. 고대 바빌로니아 토판문서들은 아카드어로 쓰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대에 발견된 SV와 상당히 그 내용이 다르지만 몇몇 부분은 상당히 일치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들에는 서문과 흥수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 바빌로니아 토판문서들을 만든 서기관들은 길가메쉬에 관한 신화적인 내용을 지닌 수메르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수메르 자료들은 자유롭게 개작하거나, 동시대의 아카드 병행구절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들은 수메르 자료들에서 일관적으로 등장하는 길가메쉬의 죽음에 관한 집착과 그것을 헛되이 극복하려는 노력을 주제로 삼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엔끼두의 죽음이 길가메쉬가 영생을 찾기 위해 떠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들은 수메르 원본인 『길가메쉬, 엔끼두, 그리고 지하세계』에서 엔끼두의 죽음과 길가메쉬의 슬픔을 분리하여 하늘의 황소 살해 이후에 배치시킨다. 엔끼두의 죽음과 길가메쉬의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메르에서 처럼, 혹은 SV의 제 12 토판에서 언급되듯이 엔끼두는 길가메쉬의 종이 더 이상 아니다. 엔끼두는 길가메쉬의 친구이자 제2의 자이이다. 그들은 엔끼두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길가메쉬를 우루의 폭군으로 등장시켜, 그 결과 신들의 결정으로 엔끼두가 창조되었다.

고대 바빌로니아 서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인용한 수메르 이야기는 『길가메쉬와 산자의 땅』이다. 이 이야기가 SV의 백향목 숲으로의 여행의 기초가 되었다.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들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들은 길가메쉬의 원정 계획, 사마쉬신의 역할, 후와와 백향목 산지가의 역할, 그리고 백향목 숲이 더 이상 자그로스 산맥이 아니라 레바논으로 옮겨졌다. 또한 수메르 이야기 『길

가메쉬와 하늘 황소』 이야기는 SV의 제 6 토판의 하늘 황소의 기초가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수메르 원본의 반-이난나적인 요소를 발췌하여 SV는 길가메쉬와 이쉬타르의 긴장으로 등장하여, 길가메쉬는 이쉬타르의 청혼을 거절한다.

1) 펜실바니아 판본 (P)

펜실바니아 판본은 남부 바빌로니아에서 기원전 18세기경 판본이다. 1914년 펜실바니아 대학이 이 판본을 구입한 후, 이 판본은 예로부터 ‘모든 왕보다 뛰어난’으로 알려졌다. 이 판본의 첫 토판은 SV와 이야기의 순서와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SV I-II 토판과 유사하다. 길가메쉬가 그의 어머니 난순에게 꿈들을 말하고, 그의 어머니는 해몽을 한다. 엔키두와 삼하트라고 알려진 창녀는 사랑을 하고 삼하트는 엔키두에게 야생 생활을 떠나 우룩으로 가지고 제안한다. 그들이 목동들의 모임에가 뺑과 맥주맛을 본다. 그는 목욕재개하고 목자들의 가드가 된다. 엔키두는 길가는 사람을 통해 길가메쉬가 지배자의 권한(droit de seigneur)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룩으로 향한다. 그가 우룩에 도착하였을 때, 마침 길가메쉬가 겨를 사람을 찾게 된다. 그래서 엔키두는 결혼 진행을 막고 길가메쉬와 씨름을 한다. 이 문서는 길가메쉬의 왕권이 정당하다고 선포하면서 글을 마친다.

P-----> SV Tablet I, II.

2) 예일 판본(Y)

이 판본은 P의 제 III 토판과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필사본에 의해 쓰였다. 이것은 예일대학이 구입하여 YBC 2178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서는 SV의 제 II-III 토판과 내용이 병행하며 일부는 SV I을 재구성하는데 사용했다. 길가메쉬와 엔키두는 단짝이 된다.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엔키두가 불행을 당하였다. 길가메쉬는 기가 빠진 엔키두에게 백

향목 숲으로 여행을 가지고 제한한다. 거기서 그들은 후와와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엔키두는 후와와가 신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길가메쉬는 엔키두에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겁장이라고 놀려댄다. 길가메쉬는 전쟁에서 죽은 영광과 그것이 가져오는 불멸의 명성을 친양한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우룩의 회의를 소집한다. 그가 여행을 발표하자 장로들은 조심이라고 당부하지만 길가메쉬는 그들의 충고를 받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 난순은 그의 아들의 여행의 안전을 기원한다. 그는 태양신과 그의 아버지인 루갈반다에게 기도한다. 길가메쉬와 엔키두는 다른 젊은이들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난다.

Y- - - -> SV Tablet I
 Y-----> SV Tablet II, III

3) 필라델피아에서의 단편 (UM 29-13-570)

이 조각은 1890년대에 니푸르(누팔: Nuffar)에서 발견되었다. 이 조각은 18세기 초기에 쓰인 것 같다. 앞면은 엔키두의 불행을 다루고 있고 Y의 79-90행과 아주 유사하다. 뒷면은 엔키두와 길가메쉬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며 Y의 200이하와 유사하다.

UM 29-13-570-----Y 200이하

4) 니푸르에서의 학교 연습 토판 (IM 58451)

고 바빌로니아 니푸르 초판은 학교와 같은 건물의 뒷방에서 출토되었다. 18세기 중엽 남부 바빌로니아를 강타한 경제 위기 때문에 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았는데 그 중 한 학교에서 출토되었다. 바그다드에 있는 이락 박물관 소장이다. 길가메쉬가 백향목 숲을 다가갈 때, 꿈 꿈을 담고 있다. SV의 IV.109

와 142를 재구성하는데 사용하였다.

IM 58451-----> SV IV. 109, 142.

5) 텔 하르말 문서들 (IM 52615; IM 52760)

바그다드의 동쪽에 있는 고대의 샤두풀(Shadupum)인 텔 하르말에 있는 개인집에서 발굴되었다. 기원전 18세기 초기의 것으로 간주된다. 니푸르 문서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연습 토판 같다. Ha1(=IM 52615)의 내용은 백향목 숲으로 가는 도중의 길가매쉬 꿈과 엔키두의 설명이다. 이 부분은 SV의 IV.183이하를 재구성하는데 사용되었다. Ha2=IM 52760은 숲에 도착한 길가매쉬와 엔키두의 대화내용이다. SV의 V.77을 재구성하였다.

Ha1 -----> SV IV.183f.

Ha2 -----> SV V.77

6) 이스찰리 문서들 (A 22007)

이스찰리의 판본은 혼 히 첫 번째 편집자인 바우어의 판본이라고들 한다. 현대 시카고 대학에 소장되어있다. 바그다드의 동쪽 디알라 가의 한 마을인 ‘네레브툼’(Nerebtum: 현재 지명은 이스찰리)에서 발견되었다. 18세기 초기의 학교 습작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 판본은 SV의 제 V 토판의 끝부분과 유사하다. 길가매쉬가 후와와를 생포하였다. 엔키두는 그를 죽이라고 요구하였지만 길가매쉬는 후와와의 ‘메’(ME)만 없앨 셈이었다. 그러나 둘은 후와와와 그의 종, 그리고 일곱 메까지도 죽인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숲을 침해하여 백향목을 넘어뜨린다.

A 22007-----> SV V 끝부분

7) 기록된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바그다드 소장의 문서 (IM 21190x)

이 토판은 이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많이 손상되었지만 그 내용은 백 향복을 넘어뜨리는 애용으로 이스찰리의 A 22007과 유사하다.

IM 21190x-----> SV V 296

8) 시파르에서 나왔다는 두 문서 (BM 96974와 VAT 4105)

이 두문서는 서로 짹이 되는 두개의 단편 조각들이다. 한 조각은 런던의 대 영박물관(BM 96974)에 있고 다른 하나는 베를린의 근동아시아 박물관 (Vorderasiatisches Museum: VAT 4105)에 소장되어 있다. 1902년에 바그다드에서 구입한 이 문서들은 바빌론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시파르(Sippar)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이 문서들은 학교 습작이아니라 양면이 두 열로 되어 있어 도서관 소장품이었던 것 같다. 이 문서들은 GE 전체가 쓰인 문서의 일부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P나 Y와는 다른 판본이다. 이 문서는 SV의 IX-X와 병행구절이며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엔키두의 죽음 때문에 지친 길가메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돌아다닌다. 태양신인 사마쉬가 하늘에서 그에게 그의 노력이 부질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길가메쉬는 안주함을 원하지 않는다. 영원한 안주함(죽음)이 오락이라는 생각에 그의 생명의 기간을 늘리고자 한다. 길가메쉬는 신두리(Sinduri)에게 어떻게 그의 친구가 죽었고 어떻게 그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겼는지 설명한다. 신두리은 인생은 즐기는 것이고 그의 자손을 가져다줄 가족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길가메쉬는 나룻배 사공인 수르수나부(Sursunabu > Ur-Shanabi)의 사공들을 헤친다. 수르수나부는 자신을 소개하고 길가메쉬는 그의 여행을 말하며 어떻게 하면 영원이 사는 우타나피쉬트(Ut-napishti> Uta-napishtim)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조른다. 수르수나부는 그에게 긴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시킨다.

Col. i-----> SV IX.18

Col. iv.2-11-----> SV X.106

II.3. 기원전 16-10세기 아카드어, 헷타이트어, 엘람어 판본들

기원전 14-2세기가 되면서 길가메쉬 이야기는 고대 근동지방에 널리 퍼져 여러 지역에서 여러 언어로 발견된다. 팔레스티아의 므깃도에서 아카드어 토판문서, 카키메쉬 남쪽에 위치한 유프라테스에 위치한 에마르에서 발견된 아카드어 토판문서, 북부 아나톨리아의 헷타이트 수도인 핫투사스에서 발견된 아카드어, 헷타이트어, 후리아어, 그리고 수사지방에서 발견된 엘람어 토판문서 등이 있다. 여기서는 바빌론 제국 안에서의 판본들과 밖에서의 판본 둘로 나누겠다.

1) 바빌론 안에서 판본들

a. 니푸르 습작 문서 (A 29934)

1949 니푸르의 Tablet Hill에서 발견된 이문서는 현재 시카고 대학 소장이다. 견습생에 의해 쓰인 이 문서는 학교 과정중의 한 교재였다. 기원전 14-13 век 니푸르가 경제적으로 부흥한 때이다. 엔기두가 만들어 지는 내용을 담는 SV I.83-4와 유사하다.

A 29934-----> SV I. 83-4.

b. 우르문서 (UET 6.394)

레오나드 울리 경이 ‘갈대인의 우르’를 발굴하다가 발견되었다. 우르는 남부 바빌로니아에 있는 나시리야의 동편에 위치한다. 이문서는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문서는 기원전 12세작품인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SV와 완벽하게 같다는 사실이다. 엔기두가 죽기직전에 사냥꾼, 창녀를 저주하고, 그 후에

는 창녀를 축복하고 지하세계에 대한 꿈을 말해준다. SV VII 90-171과 같다.

UET 6.394----> SV VII 90-171.

2) 바빌론 밖에서 판본들

a. 헷타이트 지방의 하투사(Hattusa)에서 헷타이트어 발견된 단편들 (VAT 12890: Bo 284/d)

첫 번째 문서는 1906-7년에 중앙 아나톨리아에 있는 헷타이트의 수도 하투사, 현재의 보가즈코이(Bogazkoi)에서도 발견되었다. 기원전 13세기로 추정되는 문서는 현재 베를린 근동아시아 박물관(Vorderasiatisches Museum in Berlin: VAT 12890, BO2)에 소장되어 있다. 이 토판의 앞면은 길가메쉬의 백 항목 숲으로의 여행이 나와 있다. SV IV 55를 재구성하는데 사용되었다. 뒷면은 이쉬타르와 하늘의 황소이야기이다. 두 번째 발견은 1934년이었다. 길가메쉬의 꿈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는 앙카라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Museum of Anatolia Civilization: Bo 284/d)에 소장되어있다. 1983에 다시 OB P와 Y와 비슷한 단편이 발견되었다 (Bo 83/614: Bo2). 이들은 모두 기원전 1400에 쓰인 문서이다.

Bo1. frag.(a)의 내용은 엔키두가 창녀의 유혹을 받는다. 창녀는 야생생활을 그만두고 인간사회로 갈 것을 종용한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일부로 그를 입힌다. 그들은 목동들의 모임으로 들어가자 목동들은 그를 찬양한다. 엔키두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운다. Bo1 frag.(d)는 길가메쉬는 우룩의 장로들에게 그의 여행을 말한다. 그들은 그 여행의 어려움을 말한다.

Bo2: 백항목 숲으로 가는 길에 길가메쉬는 두 번째 꿈을꾼다. 엔키두는 그 꿈을 해몽하여 여행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Bo1 a.<----- P. 51-102

Bo1 b. <----- Y. 183-95

b. 시리아의 에말 (Msk 74104z)

2개의 단편이 1974년 시리아 중부 유프라테스강 텔 메스케네(Tell Meskene)에서 발견된다. 이 문서는 현재 시리아의 알레포 박물관(Aleppo Museum: Msk 74104z)에 소장중이다. 기원전 12세기나 13세 추정되는 필사실 (scriptorium)에서 발견되었다. Emar 1이라고 알려진 단편은 SV V와 병행구 절이 있다. Emar2는 이شت타르와 하늘의 황소와 유사하다.

Msk 74104z -----> SV VI.

c. 팔레스타인의 므깃도 (Megiddo)

1950년 팔레스타인 지역의 므깃도(Megiddo: 현재의 Tell al-Mutasallim)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 문서는 기원전 14세기라고 추정된다. SV의 VII와 유사한 구절이 있다. 이 문서의 앞면은 엔키두가 잡혀 지하세계로 끄려가는 두 번째 꿈이 실려 있다. 뒷면은 그가 죽고 길가메쉬가 애도하는 내용이다.

Megi.-----> SV XII

d. 시리아의 우가리트

시리아 해변의 도시 라스 삼라(Ras Shamra: 고대 지명은 우가리트)에서 1994년 깨지지 않은 거의 완벽한 토편이 발견되었다. 이 토편은 ‘우르테누’라는 사람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12세기의 작품이며 학생 서기관이나 선생의 필체이다. 이 판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길가메쉬 이야기로부터 몇 개의 이야기를 엮은 또 다른 내용의 창작이라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빌로니아 서사시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 출처의 이야기인 것 같다.

e. 아르기슈티헤넬레(아르마빌-블루르)에서 발견된 엘람어 판본 (Diakonoff and Jankowska 1990)

지금 러시아의 헤르미타지에 소장된 이 판본은 엘람어로 쓰였다. 우랄트나라의 아르기쉬티헤넬레였던 현재의 아르마빌-블루르에서 3개의 엘람에 단편이 발견되었다. 기원전 8세기 아르기쉬티 제 1세가 우랄트 왕국을 건립하면서 아르마빌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길가메쉬를 필사했다. 내용은 신두리와 길가메쉬의 대화 내용과 후렴구가 이어졌다. 이 문서는 GE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에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로 소 시리아에는 헷타이트어와 후리어로, 엘람과 우랄산맥의 엘람어로 퍼졌음을 알수 있다. 주인공의 이름이 고대 바빌로나아처럼 GIŠ로 나와 있다. 수메르어 판본에서는 bil-ga-meš 즉 ‘조상/ 나이 많은 조상이 영웅이 되었다’로 쓰여 있다.

내용은 길가메쉬가 여신인 시두리(Šiduri: 아카드어로는 Siduri)에게 가서 ‘탄생의 식물’을 요구한다. 그의 요구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50명의 후렴구를 읊는다. 길가메쉬는 신들이 7개의 ‘메’를 가져갔다고 불평한다. 시두리는 ‘탄생의 식물’을 주기를 거절한다. 그 식물은 여자를 위한 것이지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길가메쉬는 그의 고생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SV의 이 부분은 많이 손상되어 있다. SV에서는 시두리가 아니라 우트나피쉬팀의 아내를 통하여 이 식물을 얻게 된다. 길가메쉬의 오래된 판본에서는 홍수와 우트나피쉬팀의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길가메쉬와 시두리 이야기가 훨씬 확대되었을 것이다. 후에 베-누누(Benunu)의 동생, 지카(Zika)가 언급된다.

IV. 기원전 13세기 신-레케-우닌니(Sin-leqe-uninni)의 SV 편집의도와 자료들

IV.1. SV 편집의도

중기 바빌로니아 시대가 끝나면서 이 GE는 정형화되었다. 기원전 13세기 경에 쓰인 GE는 카사이트 시대 구마사제였던 신-레케-우닌니가 재구성하였

다. 신-레케-우닌니의 SV는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의 기본 형태, 구조, 구성,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이 같으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와는 다른 길이의 행으로 정리하였고 반복적이며 현자적인 스타일을 취하였다. SV에 신-레케-우닌니가 첨가한 부분은 다음 3부분이다. 서문, 홍수 이야기, 제 12토판. 전통적인 서사시 서문형태를 취하여 서사시의 교훈적인 면모를 강조하였다. 홍수이야기가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과는 달리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아마도 신-레케-우닌니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이후에 쓰인 홍수 이야기『아트라하시스』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제 12토판 문서에서는 길가메쉬가 지하세계신으로 등장한다. 이 토판은 아마도 수메르어 판본을 그대로 아카드어로 번역한 내용같다. SV의 전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첨가된 이유는 구마 사제인 신-레케-우닌니가 지하세계의 통치자인 길가메쉬를 부과시키기 위해서이다.

SV는 니느웨(Nineveh)에서 발견된 판본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니느웨에 있는 궁중 도서관은 산헤립(Sennacherib: 기원전 688-681)이 건축을 시작하여 아수바니팔(Assurbanipal: 기원전 668)이 완성시켰다. 또한 근처 님루드(Nimrud)에 있는 글자의 신이며 말독신의 아들인 나부(Nabu)신의 신전에 딸린 도서관에서도 토판문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하란(Harran)근처에 있는 술탄테페(Sultantepe)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학교 습작문서가 발견되었다.

SV는 우선 수메르어로 쓰인 이야기들을 개작하였다. 동시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민담들, 즉 삼하트의 앤키두 유혹, 뱀이 껍질을 벗는 기원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독립적인 자료를 배합하였다. 이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료들을 한데로 묶는 문학적인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길가메쉬는 항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다.

둘째, 명성을 찾는 초기의 이야기가 후대에는 영생을 찾는 이야기로 변하였다.

셋째, 본문을 이루는 제 일 토판부터 제 십일 토판까지는 서언과 결언을 수미

반복 (Ring Composition)을 이용하였다.

넷째, SV IV와 VII에 나오는 길가메쉬의 꿈은 문장의 긴장감을 주며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을 암시한다.

다섯째, 전통적인 숙어 표현과 직접 화법을 위한 숙어적인 표현들을 이용하였다. 원 자료들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셀루基드 시대의 우록에서는 SV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쓰였다. 그래서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 함락한 후에도 쓰인 SV가 존재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우가리트나 하투사에서 발견된 토판 문서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밖에서 발견된 쇄기문헌들은 SV와 내용이 다르다. 각기의 문학적인 전통에 따라 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을 만들기 위한 학교의 교과 과정의 자료도 일률적이지 못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안에서의 GE의 내용이 일관한 이유는 신전에 딸린 학교에서는 정확히 필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IV.2. 신-레케-우닌니

기원전 7세기 니느웨에서 발견된 SV는 신-레케-우닌니(Sin-leqe-uninni)가 기원전 12세기에 편집한 서사시로 추정된다. 기원전 1000년대 발견된 쇄기문자 문헌의 저자 목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ÉŠ.GĀR d.Gilgameš šá pi m.d.Sín-leqi-unnninn lú MAŠ.MAŠ
iškāra d.Gilgameš ša pí m.d.Sín-leqi-unnninn lú MAŠ.MAŠ
“구마사제 신-레케-우닌니에 의한 길가메쉬 시리즈”

그는 카사이트(Kassite) 시대의 대 서기관이었으며 주문 사제였다. 그러나 그가 어떤 형식의 자료를 취하여 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11개의 토판 문서로 나누었는지 알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카사이트 시대에는 당시 우르, 우록, 시파르, 니푸르, 바빌론의 신전 도서관에서 발견된 토판

문서들을 대대적으로 모아지고, 기록되고, 또한 개작되었다. 엔기두가 지하 세계를 방문하는 제 12토판은 신-레케-우닌니가 참가한 것이 아니라 기원전 7 세기에 아마도 서언과 결언이 참가된 후에 더해진 것 같다.⁸⁾

신-레케-우닌니의 이러한 변화는 이미 길가메쉬 이야기가 담긴 단편적인 수메르어 판본에서 바빌로니아어 판본으로의 전승했던 기원전 19세기에 이미 있었다. 바빌로니아어 판본들은 바빌로니아 사회의 경험에 가깝도록 새로운 주제와 문학적 동기가 소개되었고, 국소적인 세계관보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을 가진 주제를 강조하였다. 여기에 기원전 12세기경 신-레케-우닌니의 SV는 자기의 직업이었던 구마사제의 경험, 관심을 더하였다. 고대인들은 그가 저자라고 하지만, 현대적 의미로는 저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SV의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레케-우닌니의 창작인 것들이 ‘의례에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함으로 나타난다.

제 1토판 1-9행

1. 나라의 기초인 [심연을⁹⁾ 보고]
2. [...을 경험한¹⁰⁾ 사람은,] 만사에 지혜롭다.
3. [길가메쉬는,] 나라의 기초인 심연을 본 사람
4. [...을] 경험한 [사람,] 만사에 지혜롭다.

8) 신-레케-우닌니의 주제에 대한 종교학적인 분석은 필자의 “신-레케-우닌니의 길가메쉬 서사시”를 보라: 세계의 영웅신화: 신화아카데미 연구총서 2(동방미디어, 2002): 57-96.

9) ‘심연’이란 단어는 *nagbu*이다. ‘나그부’는 길가메쉬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우트나파 쇄팀을 보고 나서 얻은 인생의 깊은 지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우트나파 쇄팀의 아내가 알려준, 그래서 길가메쉬가 바닷물 속 깊이 들어가 따온 불노초일 수도 있다. 이 단어는 제사문서에서 사제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특별한 지식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0) ‘경험하다’ 동사는 *idi*이다. 셈어에 있어서 이 동사 *y-d-*는 정신 활동으로써 ‘안다’라는 의미와 육체적인 활동으로서 ‘경험하다; 성 관계를 갖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동사의 명사형인 *mudū* 사제들이 거쳐야 할 통과 의례를 거친 ‘사제’를 의미하고, *lā mudū*는 ‘*mudū* 가 아닌’ 은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아 특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보통사람을 이르는 용어이다.

5. [...]... 똑같이[...]
6. 그는 만사에 대하여 지혜의 모든 것을 [익혔다.]
7. 그가 경계가 삼엄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덮혀진 비밀을 들추었다.
8. 그는 대 홍수이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져왔다.
9. 그는 먼 길을 떠나 지쳤지만 쉼을 얻었다.
10. 그의 모든 수고를 돌기둥에 새겼다.

J. H. 티가이는 이 서문이 메소포타니아의 서사시나 찬양시에 나오는 전통적인 주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이 서문은 <길가메쉬 서사시>의 반 이상 차지하는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길가메쉬의 노력과 영웅적인 전쟁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 길가메쉬의 노력의 결과인 ‘삶에 대한 지혜’를 찬양하고 있다 (Tigay 1982) 바로 점에서 SV는 바빌로니아 판관과 그 사용하는 언어, 시학, 그리고 주제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SV에서는 길가메쉬가 현자로 등장한다. (Danning-Bolle 1982) 길가메쉬는 경험이 많고 슬프며 지혜롭고, 특히 고통을 통하여 지혜를 얻은 자였다. B. 포스터는 “신-레케-우닌니는 지혜와 사랑과 섹스가 지혜를 얻는 중간 단계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한다. (Foster 1979) 포스터는 이런 분석은 그리스적이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성을 그들 삶의 일부라고 여겼고 성을 분리해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G. 부첼라티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후대 판본의) 길가메쉬는 이러한 자아발견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SV의 주제는 자신의 결점의 인식, 두려움의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문을 하려는 마음가짐’이다”라고 전한다. (Buccellati 1981)

신-레케-우닌니가 새로 첨가한 서문에서 말하려고 한 내용은 길가메쉬의 ‘신비한 지식의 습득’이다. 제 1 토판 7행과 8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7. 그가 경계가 삼엄한 것을(*niširta*) 보았을 때(*imur-ma*), 그는 덥힌 비밀을 (*katimtu*) 들추었다.
8. 그는 대 홍수이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져왔다.

신-레케-우닌니는 ‘아시푸’(*aśipu*)였다. 아시푸는 귀신을 쫓는 구마사제이다. 그는 사제의 길에 입문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amāru*) 전통적인 의식에 관련된 문서들이나 의식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신-레케-우닌니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두 단어인 ‘보다’(*amāru*)과 ‘경험하다, 알다’(*idū*)라는 동사가 대비시켰다. 이 두 동사는 사제의 비밀스런 지식을 채득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이다. 아카드어의 ‘보다’(*amāru*)라는 동사는 ‘난해한 토판 문서(특히 의례문서)를 판독하다’와 일반적인 의미의 ‘보다’가 모두 함축되어있다. 이 동사는 비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을 모두 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런 구마사제의 ‘기술’은 전수 받은 사람에 의해 다음 사제 연수생에게 전수, 학습된다. 아시푸가 익혀야 될 내용이 바로 아시푸가 되는 과정에서 “모든 심오한 지혜와 귀신 내쫓는 비밀 내용”이라고 전하고 있다. (Sweet 1990) 더우기 신-레케-우닌니는 자기의 삶의 정황을 SV에 잘 반영하고 있다.

<GE> 제 9 토판 9-10행에서, 홍수에서 살아 남아 영생을 얻은 우트나피쉬 팀Unapishtim는 길가메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길가메쉬, 내가 자네에게 감추어 진 것을 열어, 신들의 비밀들을 말할 것이다.

여기서 ‘감추어진 것’(*niśirta*)이란 ‘의례 전문 사제, 학자 또는 현자들의 특별한 일련의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다른 세계에 대한 지혜를 얻는 행위는 통과의례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통과의례에 대한 내용이 서문 제 1 토판 9행에서 그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먼 길을 떠나 지쳤지만 쉼을 얻었다.

특별히, 길가메쉬의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수고’를 돌기둥에 새겼다(제 1토판 10행)라고 기록한다. 아카드어 *mānahū*는 이런 과정의 혹독함을 표현이다. 우트나피쉬팀은 홍수이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Lambert 1980) 수메르 판본

『길가메쉬의 죽음』 그대로 베낀 제 12 토판에서 길가메쉬는 사후세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길가메쉬의 이런 여행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서 떠나야할 마지막 여행’인 죽음인 것이다. 이 여행이 바로 길가메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통과의례 과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SV를 편집한 신-레케-우닌니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비밀 의식의 경험을 길가메쉬의 삶의 여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이 상징적인 신고식은 길가메쉬가 이제 성년으로 되어가는 과정 나타내고 있다. 야콥슨이 요약했듯이, 길가메쉬의 주제는 소년 시절에서 어른으로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신-레케-우닌니가 구마 사제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를 GE의 주제로 상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대답하여야 한다.

IV.3. 두 가지 질문들

길가메쉬가 통과의례를 거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 첫째, 엔키두가 죽은 후, 길가메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 그리스 고전학자인 G.S. 커크는 그의 작품 *Myth: Its Meaning and Functions in Ancient and Other Cultures*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왜 길가메쉬는 친구의 죽음 후 문화 세계로부터 자연 세계로 사라졌는가? 이런 주제가 얼마나 중요해서, 불멸을 찾아 우트나피쉬팀을 방문하는 이야기의 기초가 되었는가? 길가메쉬가 세상과 문명의 이기를 부정한 것은 자기를 부정한 것이다.(Kirk 1973)

T. 아부쉬는 길가메쉬의 불멸을 위한 여행을 애도 의례라고 해석한다. (Abush 1987) 길가메쉬가 문명을 상징인 우룩시를 떠나 광야에서 몸을 씻지도 않고 옷도 엉클어진 채로의 여행은 애도 의례의 단계라는 것이다. 이 애도 의례를 마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여자를 춰하여야 한다. 커크

과 같은 그리스 고전학자인 T. 반 노트윅은 길가메쉬의 여행을 ‘애도의 어두운 단계이며 동시에, 새로운 탄생을 위한 첫 단계로 우리 안에 있는 망각의 구덩이에 빠져 간접적으로 죽는 행위이다’라고 전한다. (Nortwick 1993) 엔키두는 길가메쉬의 ‘야만성, 자연성’을 상징하는 ‘제 2의 자아’이다. 그러므로 엔키두를 애도하는 행위는 길가메쉬의 반쪽 자아를 찾으려는 시도이며 영적인 진화를 초래한다. GE의 주제는 바로 소년에서 성년으로 가는 성년 통과의례가 상징하는 인생의 단계이다.

둘째, 길가메쉬가 통과의례를 성공적으로 마쳐 성년이 되었다는 증거는 있는가? GE 전체에서 길가메쉬는 청소년으로 나온다. 특히 이쉬타르의 청혼을 거절하고 청소년기의 친구의 우정이 그를 지탱한다.

그러나 엔키두가 죽었을 때, 결혼을 하여 새로운 동반자를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청년기의 상상 세계로 다시 도망하려 한다. 야콥슨은 심리학자 H. S. 설리반을 인용하면서 길가메쉬의 청소년기의 상징은 엔키두이며, 엔키두는 이성간의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억제한다.

야콥슨은 청소년기에 머물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길가메쉬를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서 지적한다. 먼저 길가메쉬가 엔키두의 도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의 어머니 난순 여신이 그것을 풀이하는 장면이다.

제 일 토판

288. 나의 아들아, 네가 본 도끼는 친구이다.

289. 너는 그를 너의 아내처럼 사랑할 것이다. 너는 그를 껴안을 것이다.

290. 그리고 나는 그를 너처럼 똑같이 만들 것이다.

다음은 엔키두가 우루시에 와서 길가메쉬를 만나는 첫 장면이다. 엔키두는 길가메쉬가 우루시의 왕으로서 새로 결혼하는 신부의 첫 날밤을 빼앗으려 가는 길을 막고 선다.

100. 그는(길가메쉬) ‘우루-우리’의 거리에 서있다.

101. [...] 떠났다, 힘이 [...]
102. 그는 [길가메쉬의] 길을 막았다.
- [....]
109. 이쉬하라를 위해 침대가 [준비되었다.]
110. 신과 같은 길가메쉬가 (신랑을) 대신하여 [누울 것이다.]

이 부분은 SV가 많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 편본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바벨로니아 편본

- P 159 그는(길가메쉬) 신부와 누울 것이다.
- P 160 그가 먼저이고, 신랑은 그 다음이다.
- P 161 신들의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
- P 162 그의(길가메쉬) 탓줄을 끊을 때, 그를 위해 그녀는 이렇게 운명 지워졌다.
-
- P 198 결혼의 여신을 위하여 침대가 꿔있다.
- P 199 길가메쉬는 그 소녀를 밤에 만나기로 되어있다.
- P 200 (엔키두가) 앞으로 나와 길에 섰다.
- P 201 그는 길가메쉬의 길을 막았다.

이 뿐만 아니라 <GE>는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짚음, 미숙함,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해 백향목 숲을 지키는 후와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5 토판

- 85 후와와는 입을 열어 길가메쉬에게 말했다.
- 86 바보 길가메쉬는 천치 친구의 충고를 받아구나! 왜 내 앞에 왔느냐?
- 87 엔키두, 아버지를 모르는 물고기 자식같은 이,
- 88 자기 어머니의 젓을 먹지 못한 거부이와 자라의 자식!

그러나 후에 길가메쉬와 엔키두에게 속임수를 사용하여 후와와를 굴복시킨

다. 후와와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도 길가메쉬에게 “너는 아직 어리다”(제 5 토판 145행)라고 말한다. 이 문장은 길가메쉬가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책임 없이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길가메쉬는 무례한 행동을 한다. 그는 우루시에 사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할 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괴롭힌다. 그의 이런 행동은 우루시에 사는 여인들로 하여금 신들에게 항소를 하여, 신들은 엔키두를 만든다. 메소포타미아의 원통실린더에는 두 명의 동일한 영웅들이 묘사된다. 길가메쉬와 엔키두 간에 우정은 GE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 이 두 친구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토판

80. 그가(엔키두) 그의(길가메쉬) 마음과 같게 하라.

81. 그들이 서로 서로 짹이 되게 하라.

제 2 토판

46. 얼마나 그 젊은이(엔키두) 길가메쉬를 닮았는가?

청소년의 심리학적 특징들이 많이 발견된다. 길가메쉬의 성격은 경쟁적, 공격적, 인내성이 부족하고 무모하고 위험을 감수한다. 그가 성숙하지 못함은 후와와 괴물과 ‘천사의 황소’와의 무리한 싸움에 잘 나타나 있다. 도시의 장로들의 충고에도 아랑곳없이 원정을 떠난다. 길가메쉬의 어머니 난순여신은 태양의 신 샤마쉬신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을 한다.

제 3 토판

46. 왜 당신은 나의 아들 길가메쉬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었습니까?

47. 당신이 그를 건드려서, 그가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GE에서 길가메쉬는 야생황소로 언급된다(I.29, 52, 66, 193, 210). 이런 묘사가 전통적인 왕의 상징일 수도 있고 ‘젊은이의 건방짐’을 의미하는 은유일 수도 있다. 반면에 길가메쉬와 엔키두는 청소년이 가진 성적인 매력을 가지

고 있다. 창녀 삼하트가 엔키두와 성교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엔키두를 묘사한다.

제 1 토판

207 당신은 잘생겼어요, 엔키두! 당신은 신과 같아요

길가메쉬를 묘사하는 단어들, *kuzbu*, *dumqu*, *damqu*, *banū* 그리고 *inbu*는 모두 성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제 6 토판 시작에서 길가메쉬가 후와와를 죽인 후 목욕을 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제 6 토판

- 1 그는 그의 길게 만 머리를 씻고 그의 무기를 씻었다.
- 2 그는 그의 만 머리를 그의 등 뒤로 넘겼다.
- 3 그는 더러워진 옷을 벗어 던지고 깨끗한 옷으로 입었다.
- 4 그는 왕복을 입고 새시로 허리를 묶었다.
- 5 길가메쉬가 그의 왕관을 머리에 올려놓았을 때,
- 6 공주 이쉬타르여신이 길가메쉬의 아름다움을 쳐다보았다.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부모에게 의지한다는 점이다. 길가메쉬의 어머니 난순은 길가메쉬의 꿈을 해몽하고 길가메쉬가 엔키두와 함께 후와와 원정을 떠날 때, 길가메쉬의 알지 못하는 여행의 두려움을 들어준다. 길가메쉬는 일종의 ‘마마보이’처럼 묘사된다. 길가메쉬는 우트나피쉬팀에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성년이 되지 못한 소년이었다. 길가메쉬는 이쉬타르의 청혼을 거절함으로 성년이 되기를 거절했다. 반면에 엔키두는 영원한 소년으로 남는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도 않았고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죽음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길가메쉬는 엔키두가 죽자 “내가 그와 같지 않은가? 나도 누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제 10 토판 72, 146, 242). 죽음이 이해 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숙제이지만, 엔키두의 죽음을 길가메쉬로 하여금 죽음을 거의

부정하게 만든다.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죽음은 인간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길가메쉬는 우트나파쉬팀을 만나고야 나서야 엔키두처럼 그도 죽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VI. 나가는 글

이 논문은 모리스 야스트로가 지적한대로 GE의 원자료는 원래 길가메쉬에 속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연구를 통하여 어떤 자료들이 전해졌으며, 어떻게 변화하였나를 알려주었다. GE는 전통적인 자료들이 저자나 편집자의 손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문학적 유산을 자신들과 청중들을 위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GE는 후대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은 끼쳤다.

전통적으로 제 12 토판이 전체 토판과 연결성이 문제시되어왔다. 이 토판은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수메르 판본을 아카드어로 그대로 베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제 12 토판은 세번째 단계로 진입한 길가메쉬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레케-우닌니의 전체 구조에 중요한 결론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가족과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된다. 구마사제 신-레케-우닌니의 정상적인 성인의 이상적인 삶을 묘사한 것이다. 특히 여기서 엔키두는 길가메쉬에게 지하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 정보는 길가메쉬가 왕으로서 또한 지하세계의 재판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간접적으로 우리는 신-레케-우닌니가 묘사한 남자의 이상적인 삶을 엿 볼수 있다. 그것은 소년기나 노년기가 아닌 이 두 기간의 중간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예술에서도 왕들은 어리거나 늙게 묘사된 적이 없다.

SV는 이전의 왕조 비문의 주제였던 전쟁과 정복,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SV에서는 OBV의 싸움 장면에 간소화되었다. 기원전 1000년 부터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대부분이 전쟁 신에 관한 것인데, 신-레케-우닌니는 이미 기원전 12세기에 오랜 전통인 군사적 영웅에 대한 반론을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위대한 전설적인 왕인 길가메쉬를 통하여 성숙함과 지혜의 왕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호메로스의『일리아드』와『오딧세이아』도 한 사람의 지하세계 여행을 서사시 마지막 부분에 첨가하고 있어, 아마도『GE』,『일리아드』, 그리고『오딧세이아』 모두 공동의 주제와 형식을 차용한 것 같다. 특히『아라비안 나이트』의『불루키아 이야기』는 GE와 그 내용과 구조가 유사하다.『아라비안 나이트』는 이슬람 이전시대 그리스 시대 이야기가 형성되었다. 불루키아 왕은 영생을 보장해주는 솔로몬 왕의 반지를 찾기 위해 절친한 친구가 여행을 떠난다. 그들의 목적이 달성하기 직전 친구는 죽게되고 불루키는 에메날드 일사귀와 루비파일이 있는 지하세계로 여행한다. 거기에서 알-키뜨르가 지키고 있던 생명 우물의 물을 마셔 영생을 사는 원자 사크르 왕을 만나게 된다. 사크르왕은 불루키아에게 초기 인류역사에 대해 일어주고 불루키아는 힘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이야기의 목적은 무함마드의 도래를 예언하는데 사용되었다.

오디세우스와『오딧세이』 제 5권에서 에서 언급되는 칼립소 이야기는 길가메쉬와 신두리 이야기와 유사하다. 외롭게 홀로 지내는 여인에 위로 받을 수 없는 영웅에게 마실것을 주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바다 건너편 한 장소를 그를 보낸다. 이 여행을 위해, 그는 나무를 잘라 다듬는다. 강어귀에 있던 아트라하시스는 알키노오스와 신들의 친척들인 파에니키아인들 Phaeacians이 사는 섬으로 대치되었다.

『신밧드의 모험』 이야기들 중 2개가『오딧세이아』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신밧드의 세 번 째 여행은 본질적으로 칼립소 이야기와 같다. 한 섬에서 거주하는 칼립소는 포로로 잡힌 선원들을 하나하나 잡아먹는다. 신밧드가 빨갛게 달군 철로 그를 장님으로 만들고 칼립소가 장님이 된 채 더듬는 동안 선원들을 도망친다. 칼립소는 바다에 돌을 던져 선원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익사시킨다. 신밧드의 네 번째 여행은 키르케 이야기와 유사하다. 섬에서 포로로 잡힌 선원들이 마술적인 음식을 탐하여 목동에 의해 가축처럼 내쫓긴다. 오딧세우스처럼 신밧드만 이런 유혹을 극복한다.

길가메쉬 이야기와 오딧세우스, 『아라비안 나이트』 신밧드와 불루키아 이야기의 유사성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가 셈족인들과 그리스인들의 이야기꾼들을 통해 인종적이며 지형적인 배경에 알맞게 다시 사용되고, 개작되었다는 증명이다. 중동 지방에서 대상들과 함께 여행하던 사막 여행자들은 음유시인들과 함께 여행한다. 특히 지금도 이락 남부 바스라에서 인도, 사이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지루한 여행을 즐겁게 하는 음유시인들을 소중히 여긴다. 전승과정에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수 천년동안 창조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들에 의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인용문헌

- 배철현 A, “이난나는 지하세계로 왜 갔나?”, 『종교와 문화』, 10. 1-20 (2004).
- _____B, “지중해 연안의 인간창조신화에 나타난 통전성(intertextuality)” 서울대학 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가을 정기발표문.
- 조철수, “인안나의 저승여행” 수메르신화 : 서해컬처북스 8. 270-298. 서울: 서해문집, 2003.
- B. Alster, “The Mythology of Mourning.” In *Acta Sumerologica* 5, 1-16 (1983).
- _____, “Inanna Repenting. The Conclusion of Inanna’s Descent”, *Acta Sumerologica* 18, 1-18 (1996).
- T. I. Abush, “Gilgamesh’s Request and Siduri’s Denial”, in *The Tablet and the Scroll* (1-14), 1987.
- J. Bottéro and S. N. Kramer, *Lorsque les dieux faisaient l’homme*. rev.ed. Paris: Éditions Gallimard, 1993.
- G. Buccellati, “Wisdom and Not: The Case of Mesopotami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1, 35-47 (1981).
- W. Burkert, *The Orientalizing Revolution: Near Eastern Influence on Greek Culture in the Early Archaic Age*, transl. M. E. Pinder and W. Burker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A. Cavigneaux and F. N. H. Al-Rawi, "Gilgameš et Taureau de Ciel (Šul-mè-kam): Textes des Tell Haddad IV," *Revue d'assyriologie et d'archéologie orientale* 87 (1993).
- _____, "La fin de Gilgameš, Enkidu et les Enfres d'après les manuscrits d'Ur et de Meturan (Textes de Tell Haddad VIII)," *Iraq* 62 (2000).
- _____, *Gilgameš et la Mort. Texts de Tell Haddad VI*, avec un appendice sur les textes funéraires sumériens. Cuneiform Monographs, 19. Groningen: Styx Publications, 2000.
- J. S. Cooper, "Gilgamesh and Akka: A Review Article,"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33, 224-239 (1987).
- S. Danning-Bolle, *Wisdom in Akkadian Literature: Expression, Instruction, Dialogue*, Leiden: Ex Oriente Lux, 1992.
- I. M. Diakonoff and N. B. Jankowska, "An Elamite Gilgamesh Text from Argistihenele, Urartu (Arm avir-blur, 8th century B.C.),"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80, 102-123 (1990).
- E. O. Edzard, "Gilgameš und Huwawa A. I. Teil,"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80, 165-203 (1990).
- _____, "Gilgameš und Huwawa A. II. Teil." In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81, 165-233 (1991).
- _____, "Gilgameš und Huwawa zwei Versionen der sumerischen Zedernwaldepisoden nebst einer Edition von Version "B"." In *Sitzungberichte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4, 1-61. (1993)
- B. Foster, Review of *Das Gilgamesh-Epos*. ed. K. Oberhuber in *Bibliotheca Orientalis* 36, 185-188 (1979).
- A. R.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Paul Haupt, *Das babylonische Nimrodepos*. Leipzig: J. C. Hinrichs, 1884.
- William W. Hallo, "The Limits of Skepticism,"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0 (1990).
- Th. Jacobsen, *Sumerian King List*, Assyriological Series 1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 _____, "Primitive Democracy in Ancient Mesopotamia,"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2, 159-172 (1943).

- _____, *The Treasures of Darkness. A History of Mesopotamian Religion*.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6.
- _____, *The Harps that Once.... Sumerian Poetry in Transl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 M. Jastow and A. T. Clay, *An Old Babylonian Version of the Gilgamesh Epic*, *Yale Oriental Research* 4(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20.
- P. Jensen, *Assyrisch-babylonische Mythen und Epen* (Berlin: Keilschriftliche Bibliothek 6/1; Reuhter and Reichard), 116-265 (1900).
- D. Katz, "Gilgames and Akka: Was Uruk Ruled by Two Assemblies?" *Revue d'Assyriologie et d'Archeologie orientale* 81, 105-114 (1987).
- _____, *Gilgamesh and Akka*. Groningen: Styx, 1993.
- D. Katz, *Gilgamesh and Akka. Library of Oriental Texts*. 1 Groningen; Styx Publications, 1993.
- S. N. Kramer, "The Epic of Gilgameš and Its Sumerian Sources: A Study in Literary Evolutio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64 (1944).
- _____, *History Begins at Sumer*. Garden City, NY: Doubledayt, 1959.
- _____, "Sumerian literature and the British Museum: the promise of the futur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24-5, 299-310 (1980).
- G. S. Kirk, *Myth: Its Meaning and Functions in Ancient and Other Cultur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 S. Lambert, "The Theology of Death," in *Death in Mesopotamia* ed. B. Alster. Copenhagen: Akademisk Forlag, 55-66 (1980).
- S. H. Langd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32).
- T. B. Macaulay "Indian Edudation: Minute of the 2nd of February, 1835" in *Macaulay: Prose and Poetry*, ed. G. M. Young (719-30). London: Rupert Hart-Davis, 1952.
- Piotr Michalowski, "History as Charter: Some Observations on the Sumerian King List,"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03, No. 1, *Studies in Literature from the Ancient Near East, by Members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Dedicated to Samuel Noah Kramer*, 237-248 (1983).
- C. Miguel, "Reading Gilgameš," *Aula Orientalis* 17-8, 179-189 (1999-2000).
- C. Penglase, *Greek Myths and Mesopotamia: Parallels and Influence in the Homeric*

- Hymns and Hesiod.* London: Routledge, 1994.
- M. B. Rowton, "The Date of the Sumerian King List,"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9, 156-162 (1960).
- W. H. Ph. Roemer, *Das sumerische Kurzepos 'Bilgamesh und Akka'*, *Alter Orient und Altes Testament* 209.I. Kevelaer: Verlag Butzon & Bercker, 1980.
- A. Shaffer, Sumerian Sources of Tablet XII of the Epic of Gilgamesh,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63.
- _____, "Gilgamesh, the Cedar Forest and Mesopotamian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3, 307-13 (1993).
- W. R. Sladek, *Inanna's Descent to the Netherworld*.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73.
- George Smith, *The Chaldean Account of Genesis*. London: Sampson Low, Marston, Searle and Rivington, 1876.
- R. F. Sweet, "The Sage in Akkadian Literature: A Philological Study,"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ed. J. G. Gammie, L. G. Perdue. Winona Lake, Ind.: Eisenbraus, 1990.
- J. Tigay, *The Evolution of the Gilgamesh Epic*.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82.
- R. C. Thompson, *The Epic of Gilgamesh*. Oxford: Clarendon Press, 1930.
- H. L. J. Vanstiphout, "Towards a Reading of "Gilgamesh and Akka"," *Aula Orientalis* 5, 129-141 (1987).
- Van Nortwick, *Somewhere I Have Never Traveled: The Second Self and the Hero's Journey in Ancient Ep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R. Wellek and A. Warren, *A Theory of Literature*, 3rd. ed.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6.
- M. L. West, *The East Face of Helicon: West Asiatic Elements in Greek Poetry and Myth*. Oxford: Clarendon Press, 1997.
- C. Wilcke, "Politische Opposition nach sumerischen Quellen: der Konflikt zwischen Königtum und Ratsversammlung. Literaturwerke als politische Tendenzschriften," In Finet, A. (ed). *La voix de l'opposition en Mésopotamie. Colloque organisé par l'Institut des Hautes Études de Belgique, 19 et 20 mars 37-65*. Belgique: Institut des Hautes Études de Belgique, 1973.
- _____, *Kollationen zu den sumerischen literarischen Texten aus Nippur in der*

Hilprecht-Sammlung Jena. Berlin: Akademie-Verlag, 1976.

D. W. Young, "The Incredible Regnal Spans of Kish I in the Sumerian King List,"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0, 23-35 (1991).

[Abstract]

Why Did Sin-leqe-uninni's Compile the Gilgamesh Epic?

Chull Hyun Ba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pic of Gilgamesh drew heavily upon Mesopotamian literary tradition. Sin-leqe-uninni, the editor of Standard Version of the Epic of Gilgamesh in 13th century B.C.E. adopted the Old Babylonian version as well as older Sumerian tales about Gilgamesh. He also was very successful by extensive use of materials and literary forms originally unrelated to Gilgamesh. The epic opens with a standard type of hymnic-epic prologue.

This study lens a measure of vindication to the theoretical approach by which Morris Jastrow recognized the diversity of the sources, which underlies the epic and succeeded in identifying some of them. Thanks to the ample documentation available for the literary development of the epic, we can trace the steps which its author and editors took with the result that the epic inspires fears and aspirations for more than three thousand years.

신-레케-우느니의『길가메쉬 서사시』 편집의도 / 배철현 203

심사기간 : 2005년 4월 29일~5월 20일

재 심 사 : 2005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5년 6월 4일(편집위원회의)